

■ **특특뉴스**

**국민연금, 네덜란드 공사와 파트너십**

국민연금공단은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호주와 포르투갈 지역 사업에 공동투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PG는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을 비롯해 교육·건설·에너지 분야의 연기금 자산을 위탁하는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운용사로, 지난해 말 기준 약 698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APG와 운용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 면담을 거쳐 상호 협력에 관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 **그래픽 경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 7.5% 상승**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75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전셋값이 7,500만원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이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는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 원을 넘겼던 8월(5억1,011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올랐다.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 6,160만원)보다는 7,517만원(16.3%) 오른 것이다.

## 기아차 파업결의에 협력사 '불안'

**기아차 노조원 쟁의행위 73.3% 찬성**

**부품사 "어려운데 파업까지..." 하소연**

**현대차 코로나 고려 무분규 합의 대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완성차 업계가 위기 상황인데도 기아자동차 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결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협력업체들은 생산기반이 무너질까 불안해 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4일 2020년 임금 단체

소화가 78.99%로 뒤를 이었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파업 수순으로 들어섰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무분규 이후 9년 연속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올해 임금 단체 협상 테이블에서 회사 측과 9차례 교섭 후 결렬을 선언한 이후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 결정은 5일 오후 내릴 예정이다.

노조는 일단협에서 기본급 12만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로 5년 연장,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3분기 회사 측이 1조원가량의 품질 비용을 실적에 반영해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경영"이라며 이사회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교섭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합의를 했고, 노조는 곧바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올해 임금을 마무리 지었다.

기아차 노조는 과반이 넘는 조합원들

의 쟁의찬성의견을 협상카드로 쓸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무책임한 경영에 노조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면서 "다음주 정도면 사측과 협상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원의견을 잘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권을 결의하자 부품 협력업체 사이에서는 우려와 함께 불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어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경우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부품사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에 수출이 줄고 내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나라 기자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제4회 농축협 윤리경영 대상에 영암 삼호농협이 지난 3일 대상을 수상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 영암 삼호농협, 제4회 농축협 윤리경영 대상 수상

**지역민과 동행 지역사회 기여**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제4회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에 영암 삼호농협(조합장 황성오)이 지난3일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에 삼호농협(대상), 오정농협(최우수상), 우수상에는 구미농협 남부안농협 서부농협 평장영월정선축협 등 6개 농축협을 전

국대표의 윤리경영 선도 농축협으로 선정했다. 삼호농협은 전국 무화과 60%를 생산하는 대표 산지농협으로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던 대구 지역에 전남농협을 대표해 무화과즙 500박스(2,500만원 상당)를 전달했으며, 2018년에는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등 지역민과 동행하며 지

역 사회에 기여하는 농협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황성오 삼호농협 조합장은 "농가소득 증대사업 및 다양한 경제적, 상생적 책임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정착하고 조합원들에게 투명하도록 일 하자고 독려했던 것이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미에 기자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해법 모색

**전기연구원 기술교류회 지역기업 연대·협력 논의**

한국전기연구원이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지역사업평가단과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지역 에너지신산업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기업 네트워크 및 기술교류회'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역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본부는 남구 압촌동 내 약 9만9,173㎡(3만평)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742억 원을 투자해 올해 7월 개원한 연구 시험 핵심거점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사업 업종별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역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각종 애로·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일정은 ▲그린뉴딜 전략 및

2021년 에너지신산업 지원 정책 발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스마트그리드연구단 소개 및 패밀리 기업지원 제도 안내 ▲광주 에너지 특화 산업육성 지원 사업 소개 ▲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끌어갈 주요 기술인 에너지신산업 연구, 분산전력시스템, 전력변환시스템, 디지털에너지시스템 등 미래형 에너지용·복합 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 기술력 향상, 신규 사업 투자 증가 및 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광주 에너지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최규하 원장은 "광주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이고, 기술교류회도 자주 열어 산업계의 다양한 고충과 의견을 듣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 12월에 다가올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성과보고전시

제조산업에 디자인을  
불어넣는

양산화지원

마케팅지원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해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어둠속 빛나는 지원,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가  
함께 합니다

산업화 디자인 프로젝트